

“조선·생물·신소재 산업 집중 육성한다”

전남도가 오는 2012년까지 1천574억원을 투입, 조선과 생물, 신소재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

전남도는 2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에 국비 946억원과 지방비, 민자 등 1천57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단계 사업의 내년도 세부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된 지역전략산업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생물의약연구개발,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등 특화센터들을 기반으로 생물산업과 신소재, 조선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 기반 구축 ▲기술

전남도 전략산업 2단계 2012년까지 1,574억 투입

연구개발·인프라 활용 기업 지원 등에 중점 투자

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전략산업 기술투입 등 5개 분야다.

지역산업 기반 구축의 경우 전남테크노파크의 고분자산업화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에 120억원,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의 마그네슘 시험생산시설과 장비 구축에 113억원, 생물의약연구원의 생물의약품 생산시설 및

생산라인 구축에 65억원 등 415억원이 지원된다.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기술 개발은 지역산업 선도기술 개발과 지역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역전략기술투입개발, 지역연계 기술개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등에 688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산업인력 양성 사업에는 203억원이,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품질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에는 204억원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과 장비가 확보됐다고 보고 이번 2단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전략산업 발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순주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 설

‘특색’ 못 살린 여수엑스포 마스터플랜

2012여수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시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 서다.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데다 사후 활용방안도 구상 수준에 그쳐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음에 걱정된다.

마스터플랜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패를 가를 기본틀이며, 박람회 이후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아무리 시간이라 하지만 구체성과 내용이 부실하고 기본철학과 방향조차 명쾌하지 못하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엑스포의 주제도 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여수만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한 여수엑스포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교통·숙박시설도 기본 수요 예측조차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 한심하다. 관광객이 어디에서 오게 될지 추정하지 않은 채 도로망을 짜고, 구체적인 숙박객 규모와 분석 등 수익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고급 숙박시설은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박람회 이후 각종 시설 활용계획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엑스포타운, 호텔, 콘도 등 핵심시설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지만 민자가 농사일 수는 없다. 그럴듯한 수익모델을 제시해도 투자를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 세계박람회는 준비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마스터플랜은 보완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계획을 확정해야 재정투자자와 민자 유치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엑스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쓴소리’ 깊이 새겨야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민심 다지기를 본격화했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엇그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 내려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도와의 정책협의회, 지역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가졌다. 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1박을 하며 여론을 수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벨트)도 조성사업) 등 광주와 전남의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이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전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 것이다.

10년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주·전남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총선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민주당의 뿌리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쏟아진 쓴소리에 이런 기류가 묻어난다. ‘반대만 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돼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지난 10년간 정권을 못차렸는데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쓴맛이 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두 차례에 걸쳐 정권 차원의 수훈이었지만 지역민생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현안을 적극 지원키로 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약속한 것은 많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쓴소리를 깊이 새겨 지역에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현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총선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민주당의 뿌리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쏟아진 쓴소리에 이런 기류가 묻어난다. ‘반대만 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돼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지난 10년간 정권을 못차렸는데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쓴맛이 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두 차례에 걸쳐 정권 차원의 수훈이었지만 지역민생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현안을 적극 지원키로 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약속한 것은 많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쓴소리를 깊이 새겨 지역에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기아차 노사,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 도출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2차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기아차 노사는 26일 18차 임금 분교섭을 갖고 ▲기본급 8만5천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300%·격려금 360만원 지급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 단체협상 부문에서는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병원비 지원한도 2천500만원

으로 인상 ▲전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기아차 노사는 조만간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임단협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급 8만5천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30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1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재정부 “외화자금시장에 100억불 긴급 투입”

정부가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100억 달러 이상을 긴급 투입한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26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외화자금시장에 다음달까지 최소 100억달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국장은 “10월 상반기까지 100억달러 정도를 공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부족하면 더 공급하겠다”면서 “이미 한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하면 그 이상(달러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관련 최 국장은 9월 말 외환보유액은 8월 말과 비슷한 2천4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10월 말 보유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丁대표 “전남 조선산업, 금융 지원에 최선”

광주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지키겠다”



민주당 정세균(왼쪽에서 두번째) 대표가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주선, 김진표, 장상, 윤덕홍, 김민석, 송영길, 안희정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당이 26일 광주에서 광주시, 전남도와의 정책협의회, 지역위원회와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 뒤 26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뒷밭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에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민주당이 확실히 하나가 됐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졌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또 “5+2광역경제권 구상은 지금까지 예외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수정돼야 한다”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상임위나 정기국회 활동 통해 광역경제권 구상의 부당성을 날같이 지적하고 건설적 토론을 통해 시정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전남지역 조선산업이 지금 잠진척되다가 금융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내세운 5+2경제발전정책은 국가균형정책의 종합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단언한 뒤 “가장 낙후된 호남에 대해 집중적 배려가 있어야 균형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이대로 되면 호남이 편중되고 호남은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선도 프로젝트에 호남은 5개, 영남은 10개 배정됐으며 호남 배정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이미 확정돼 수행되는 사업을 마치 신사업인 것처럼 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다시 분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 정진을 계속해 다시 한 번 민주당원 참여를 최선으로 다하고 책임있는 대안이 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어떤 명분이든 이우

로도 민주당의 분열이나 분화로 비칠 수 있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신민주대연합’을 선포하는 역사적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 출신의 윤덕홍 최고위원은 “호남과 영남이 뿔뿔 뿔쳐 이명박 정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가 영남의 교두보를 만들어 다음번에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인재 DB, 특정대·지역 편중 심각”

SKY대 37%…영남권이 호남권보다 2배 이상 많아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재들의 영호남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가 인재 DB에 등록된 15만9천여명 중 영남권 등록인재는 1만9천여명(부산 6천750명, 대구 3천983명,

울산 1천137명, 경북 3천754명, 경남 3천706명)으로 호남권 8천400여명(광주 3천161명, 전남 2천51명, 전북 3천279명)보다 2.3배 많았다.

출신대학별로는 대학졸업 등록자 11만 8천591명 중 서울대 2만5천953명(21.8%), 고려대 9천374명(7.9%), 연세대 8천418명(7.1%) 등 이른바 ‘SKY대’ 출신이 4만3천

745명(36.9%)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대 7천 728명(6.5%), 한양대 5천268명(4.4%), 상군관대 3천775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로는 경북대와 부산대가 3천377명(2.8%)과 3천292명(2.8%)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 대표 대학인 전남대는 2천487명으로 3위에 그쳤다. 4위도 영남대(2천378명)가 기록했다.

직종별로는 공무원이 34.8%로 가장 많았고 교육인 28.9%, 경제·기업인 13.8% 등의 순이었다고 정 의원은 1.3%에 불과했다.

성별 불균형도 심각해 남성이 88.8%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11.2%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분양아파트 25만가구 대책 검토중”

李 대통령, 민주 丁 대표 회동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미분양 아파트 25만 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 대표는 회동에서 미분양 아파트 25만 가구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뤘다”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을 설명하자 정 대표가 미분양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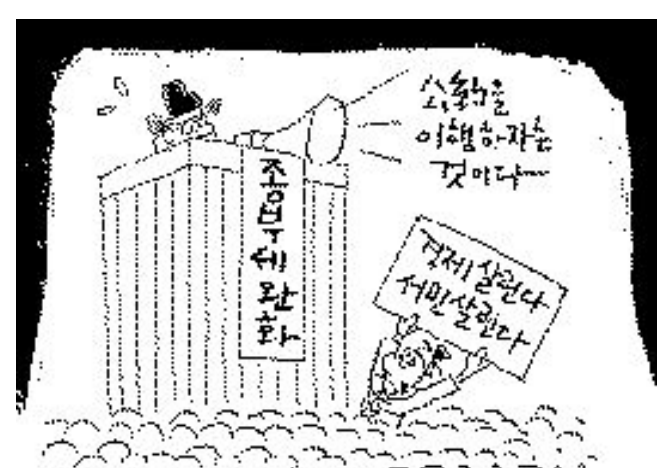
를 해결해 연쇄부도를 막는게 500만호 건설보다 중요하며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대표가 ‘시급한 문제다. 부도가 난 다음에 해결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속도있는 해결을 주문했으며 이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싼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식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그럼, 진짜 공약 좀 지켜 보세요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정체국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공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